

청년기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와 부모 및 친구의 애착기능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청년기 동안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와 애착대상으로서의 부모 및 친구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남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388명)을 대상으로 호위대 모델을 사용하여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호위대 크기와 구성원에서 차이가 있는지, 호위대에 포함된 동성 및 이성친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모와 동성 및 이성친구는 애착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외곽원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큰 외곽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과는 다르게 내부원에 이성친구를 포함하고 중고등학생들보다 중간원과 외곽원에 더 적은 친인척을 포함하였다. 호위대 속의 동성친구 비율은 중학생에서 가장 높고 연령에 따라 감소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성친구의 비율은 대학생조차도 매우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네 가지 애착기능 중 동성친구는 주로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한 반면, 어머니는 분리저항 기능과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인물이었다. 이성친구는 대학생들에서만 근접추구와 분리저항 기능을 하였고 아버지는 남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만 어머니보다 더 높은 비율로 안전기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주요어: 호위대, 청년기, 부모, 친구, 애착

중고등학교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어떤 사람들과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가? 아동기와 비교하여 가정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청소년들은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로 대화하며 함께 운동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장휘숙, 2009). Larson과 Richards(1994)같은 연

구자들은 청소년들은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친구와 보내는 반면, 부모나 다른 성인과는 단지 15%의 시간만을 함께 할 뿐이라고 보고하였다. 연령에 따라 정서적 지원자의 변화를 연구한 Furman과 Buhrmester(1992)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가장 빈번한 지원 제공자는 부모이지만 7학년 무렵에는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동성의 친구들이 부모와 동일한 정도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10학년에 이르면 친구들이 가장 빈번한 지원제공자가 되며, 대학생이 되면 이성친구가 동성친구 및 어머니와 동등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정서적 지원제공자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청소년과 대학생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Kahn과 Antonucci(1980)에 의해 개발된 호위대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정서적으로 가깝고 중요한 사람을 기술하기 위해 세 개의 동심원을 포함하며, 각 동심원은 각기 다른 수준의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을 포함한다. 이 중 내부원은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중간원은 내부원의 구성원들만큼은 가깝지 않지만 그래도 매우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을 그리고 외곽원은 내부원과 중간원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한다. 특히 내부원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에게 가까운 사람들로서 애착인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Kahn & Antonucci, 1980). 이와 같이 가까움의 정도에 따라 세 개의 동심원을 포함하는 호위대 모델이 애착관계를 포함하여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 모형이라는 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Antonucci, Akyama & Takahashi, 2004),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Antonucci, Fuhrer & Dartigues, 1997; Baltes & Mayer, 1999; Knipscher & Antonucci, 1990)에서 입증된 바 있으며, 한국 대학생들과 중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휘숙(2006, 2011)의 연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호위대 속에 포함된 인물들이 시간

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보통 아동기 동안에는 호위대 속에 주로 부모와 조부모 및 다른 친인척을 포함하지만 성장과 함께 친구나 이성친구 혹은 배우자를 포함하고 더 이후에는 자녀와 직장동료 그리고 더 나아가 며느리, 사위, 손자녀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령에 따라 호위대 크기와 구성원들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세부터 93세까지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수행된 Antonucci와 Akiyama 및 Takahashi(2004)의 연구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나이많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중년 성인들은 노인들보다 더 큰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큰 내부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간원과 외곽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호위대의 구성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13-19세 집단은 내부원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를, 그리고 중간원과 외곽원 모두 친구와 이성친구를 포함하여 내부원에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20세 이상의 집단이나 중간원과 외곽원에 동성의 친구만을 포함하는 8-12세 집단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본의 13-19세 청소년들은 내부원에 친구도 포함하였고 중간원에는 이성친구 대신에 조부모를 포함하여 문화적 차이도 확인될 수 있었다. 호위대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 중년 성인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11)의 연구에서는 40대 남성들은 40대 여성들보다 더 큰 크기의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을 가지고 있었고 50대 남성들은 50대 여성들보다 더 작은 크기의 중간원과 외곽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0대와 50대는 60대보다 더 큰 내부원, 중간원 및 외곽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호위대 구성원에서도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호위대 구성원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는 모든 연

령에서 호위대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인물이지만 또래나 이성친구 혹은 배우자와 같은 인물들은 특정한 연령에서 호위대 속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청년기에 이르면 청소년들은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를 이루어가는 반면, 친구들과는 더 많은 접촉을 갖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 동안 친구는 중요한 호위대 구성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호위대의 크기와 구성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가까운 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Antonucci, Akiyama & Lansford, 1998; Birditt & Fingerman, 2003) 호위대 크기와 구성원에서 연령차와 함께 성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청년기는 전생애의 어떤 시기에서보다 친구가 중요시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청년후기에 이르면 이성친구가 중요해질 것이므로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호위대 속에 포함되는 동성친구와 이성친구의 비율도 확인하려고 한다.

일찍이 Kahn과 Antonucci(1980)는 내부원의 구성원들을 애착관계로 규정하고 각 구성원들은 개인의 애착대상으로서 특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고 한국의 중년 성인들을 연구한 장휘숙(2011)의 연구에서도 내부원의 구성원들은 애착관계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인물이 애착대상일 수 있기 위해서는 Hazan과 Zeifman(1994)의 주장대로 근접추구(proximity seeking) 기능과 분리저항(separation protest) 기능, 안전기지(secure base) 기능 및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접추구 기능은 애착인물과의 근접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분리저항 기능은 애착인물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는 것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안전기지 기능은 애착인물과 함께 있을 때 마음 놓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한 피난처 기능은 위협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탐색행동을 멈추고 애착인물로 후퇴할 수 있도록 한다.

애착대상의 기능을 연구한 Hazan과 Zeifman(1994)의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부모보다는 동성의 친구집단과 시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동성의 친구는 위안과 정서적 지원의 근원으로서 부모보다 더 선호되는 인물이었으므로 동성친구는 주로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하는 인물로 확인되었다. 대조적으로 부모는 분리저항의 목표로서 그리고 안전기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애착대상으로서 부모와 동성친구는 각기 상이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의복 스타일과 음악기호 혹은 여가활동과 같은 매일 단위의 단기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성의 친구집단에 의존하지만, 교육문제나 직업문제와 같은 장기적 문제는 물론 도덕적 문제, 가치관 문제 혹은 종교 문제에 직면하면 여전히 부모나 주위 성인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므로(장휘숙, 2009 재인용; Steinberg, 1999), 동성친구와 부모는 각기 상이한 애착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Steinberg와 Silverberg(1986)의 주장대로 청년후기는 동성에서 이성으로 애착대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이성친구 역시 핵심적인 애착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위대 모델을 사용하여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의 크기와 구성원에서 차이가 있는지, 전체 호위대에서 동성친구와 이성친구가 차

지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모와 동성 친구 및 이성친구는 각기 상이한 애착기능을 하는 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

3개의 남녀 공학 중고등학교의 3학년 남녀 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개인에게 중요한 호위대 구성원들이므로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들과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중학교 3학년 남학생 56명과 여학생 57명,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60명과 여학생 58명 그리고 남자 대학생 52명과 여자 대학생 55명이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단 한 사람만을 응답해야 하는 애착의 기능에 관한 질문에서 한 사람 이상을 응답한 연구대상자들이 많아 상당수의 연구대상자들이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중학생 14.89세(SD=.312), 여자 중학생 14.86세(SD=.398), 남자 고등학생 17.83세(SD=.493), 여자 고등학생 17.81세(SD=.476), 남자 대학생 21.92세(SD=1.02) 그리고 여자 대학생 21.40세(.993)였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문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임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은 심리학 개론 시간에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위해 중고등학생들은 약 30-40분 그리고 대학생들은 약 20-30분의 시간을 요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호위대 크기와 구성원 측정

호위대 크기와 내부원, 중간원 및 외곽원에 포함된 인물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장 가운데 원 속에 '나'라고 쓰여져 있고 차례로 세 개의 동심원이 그려진 그림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게 한 다음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기초하여 세 개의 원 중의 하나에 그들의 이름을 써 넣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을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내부원에, 내부원에 쓴 사람보다는 가깝지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을 내부원 바깥의 중간원에 그리고 내부원과 중간원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으로 아직도 가깝고 중요한 사람을 중간원 바깥의 외곽원에 기록하도록 하였고 이름 옆에는 연구대상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게 하였다. 호위대 크기를 위해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에 기록된 사람의 수를 계산하였고 호위대 구성원은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에 포함된 인물들을 기록하였다.

애착인물의 기능 측정

Hazan과 Zeifman(1994)이 사용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사용하여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 분리저항 기능 및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인물을 조사하였다. 즉 “당신은 누구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합니까?”(근접추구 기능),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들 때 당신은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안전한 피난처 기능), “당신은 누구와 떨어져 있기를 가장 싫어합니까? 떨어져 있는 동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분리저항 기능) 그리고 “당신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안전기지 기능)가 그것이다. 각 질문에 대해 반드시 한 사람의 이름만 쓰도록 하고 본인과의 관계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애착인

물의 기능이 측정되었다.

부모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의 애착기능을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어머니, 아버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를 선택한 비율이 계산되었다. 흥미롭게도 4가지 애착기능 모두에서 동성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은 중학교 남자 청소년 15명(26.32%), 중학교 여자 청소년 4명(7.02%),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 5명(8.33%) 그리고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 3명(5.17%)이 있었고, 중학교 여자 청소년 1명(1.75%)과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 3명(5.0%) 그리고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 4명(6.90%)은 모두 어

머니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 1명과 중학교 여자 청소년 1명은 모두 언니라고 응답하였고 모두 이성친구(고등학교 여자 청소년), 모두 형(고등학교 남자 청소년), 모두 아버지(중학교 남자 청소년), 모두 할머니(고등학교 여자 청소년)라고 응답한 사람도 각 1명씩 있었다.

결 과

1.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호위대 구성원의 크기

표 1. 성과 연령집단에 따른 내부원, 중간원, 외곽원 구성원의 수와 평균(표준편차)

성별	연령 집단	N	구성원 수와 평균(표준편차)		
			내부원 M(SD)	중간원 M(SD)	외곽원 M(SD)
남	중	56	4.32(2.281)	5.70(3.736)	3.18(2.842)
	고	60	4.32(2.554)	6.13(2.960)	3.53(2.266)
	대	52	3.94(1.994)	5.48(3.019)	4.17(3.191)
	전체	168	4.20(2.294)	5.79(3.248)	3.61(2.783)
여	중	57	3.88(1.900)	6.12(3.571)	4.44(2.626)
	고	58	4.03(2.086)	5.93(3.189)	3.93(2.519)
	대	55	4.33(2.073)	5.75(3.256)	5.47(3.731)
	전체	170	4.08(2.018)	5.94(3.327)	4.60(3.047)
전체	중(a)	113	4.10(2.100)	5.91(3.644)	3.81(2.795)
	고(b)	118	4.18(2.330)	6.03(3.063)	3.73(2.392)
	대(c)	107	4.14(2.035)	5.62(3.131)	4.84(3.524)
	전체	338	4.14(2.157)	5.86(3.284)	4.11(2.956)

표 2.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내부원, 중간원, 외곽원 구성원 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F값	Tukey 사후검증
내부원 구성원의 수	성별	.233	
	연령집단	.036	
	성별 x 연령집단	1.126	
중간원 구성원의 수	성별	.651	
	연령집단	.624	
	성별 x 연령집단	.754	
외곽원 구성원의 수	성별	9.836**	
	연령집단	4.887**	a,b<c
	성별 x 연령집단	.897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동일함.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호위대 구성원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집단(중, 고, 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호위대 구성원들의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내부원과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 각각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 구성원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2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부원과 중간원 구성원의 수에서는 성별과 연령집단의 주효과 및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곽원에서는 성별($F(2,332)=9.836, p<.01$)과 연령집단($F(2,332)=4.887, p<.01$)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더 큰 외곽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연령집단의 주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큰 외곽원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2.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호위대 구성원에서의 차이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의 구성인물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개의 동심원 각각에 응답된 인물들을 반응빈도가 높은 순서로 5명씩 선택하고 각 인물에 대한 반응비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1a,b, 2a,b, 3a,b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학교 남녀 학생들과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의 내부원 구성원들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동성친구 그리고 조부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동성친구는

조부모보다 더 가깝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남녀 대학생들의 내부원 구성원들은 조부모 대신 이성친구를 포함하여 차이를 보였다. 중간원 구성원에서는 연구대상자들 모두 동성친구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사촌 형제자매와 조부모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였으며 중학교 남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형제자매를 포함하였다. 또한 남녀 중학생들은 중간원 구성원으로서 고모, 이모, 삼촌을 보고하였고, 남녀 고등학생들은 중간원 구성원으로 선생님을 보고하였으나 남자 대학생은 선후배를 그리고 여자 대학생들은 이성친구를 보고하였다.

외곽원 구성원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인물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동성친구였고 선생님은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외곽원 구성원으로 응답한 인물이었다. 고모, 이모, 삼촌은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외곽원 구성원으로 보고한 인물하였고, 사촌 형제자매는 남자 대학생들을 제외하고 외곽원 구성원으로 응답된 인물이었다. 비록 그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중학교 남학생 중에는 아버지를 외곽원구성원으로 응답한 사람이 있었고, 남자 대학생들은 이성친구를 그리고 여자 대학생들은 선후배를 외곽원 구성원으로 보고하였다.

3. 호위대 속의 친구 비율

호위대 속에 포함된 동성친구와 이성친구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3, 4, 5와 같이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내부원, 중간원, 그리고 외곽원의 전체 반응수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의 반응수와 비율을 계산하였다.

표 3에서 내부원의 전체 반응수에 대한 동성친구 비율은 남자 중학생 23.57%, 남자 고등학생 13.38% 그리고 남자 대학생 14.63%로서 남자 중학



그림 1a. 남자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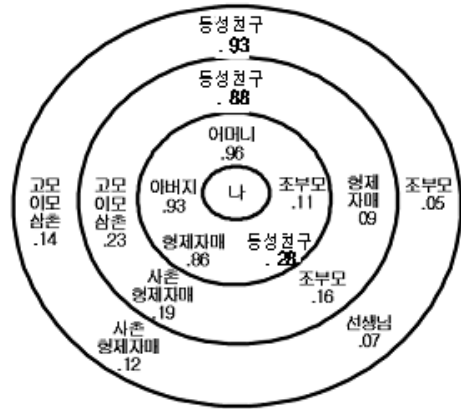


그림 1b. 여자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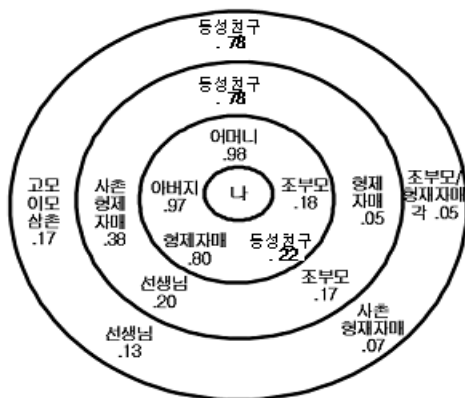


그림 2a. 남자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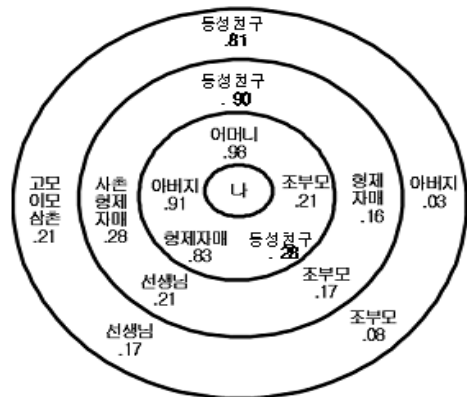


그림 2b. 여자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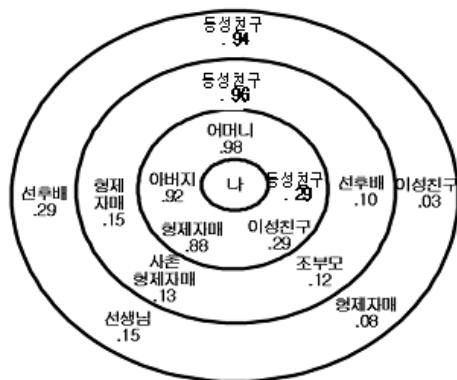


그림 3a. 남자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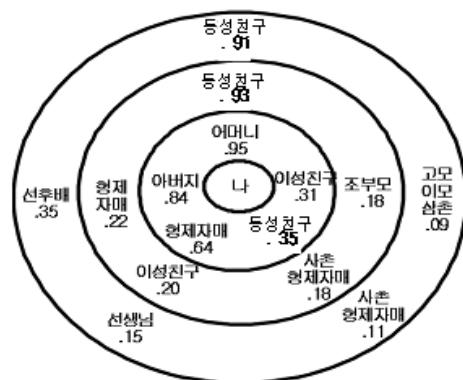


그림 3b. 여자 대학생

표 3.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내부원의 전체 반응수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 반응수(%)

성 별	연령 집단	N	반응 총수	동성친구	이성친구
남	중	56	246	58(23.57%)	1(0.41%)
	고	60	269	36(13.38%)	3(1.12%)
	대	52	205	30(14.63%)	15(7.32%)
여	중	57	221	45(20.36%)	1(0.45%)
	고	58	234	41(17.52%)	1(0.43%)
	대	55	238	40(16.81%)	7(2.94%)

표 4.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중간원의 전체 반응수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 반응수(%)

성 별	연령 집단	N	반응 총수	동성친구	이성친구
남	중	56	324	256(79.01%)	1(0.41%)
	고	60	368	251(68.20%)	1(0.37%)
	대	52	286	200(69.93%)	4(1.95%)
여	중	57	221	257(74.06%)	1(0.45%)
	고	58	234	235(70.35%)	1(0.43%)
	대	55	316	201(63.61%)	11(4.62%)

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chi^2(2)=12.893, p<.001$). 또한 여자 중학생 20.36%, 여자 고등학생 17.52% 그리고 여자 대학생 16.81%로서 여자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chi^2(2)=8.126, p<.01$), 남녀 모두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이성친구를 응답한 비율은 남자 대학생들은 7.32% 그리고 여자 대학생들은 2.94%를 나타내어 1% 내외의 응답을 보인 중고등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청년초기의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보다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 속에 더 많은 동성친구를 포함하였고, 이성친구는 비록 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만 가깝고 중요한 인물로 지각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중간원 속에 포함된 동성친구 비율

표 5.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외곽원에서의 전체 반응수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 반응수(%)

성 별	연령 집단	N	반응 총수	동성친구	이성친구
남	중	56	191	151(79.06%)	1(0.52%)
	고	60	212	158(74.52%)	0(0.00%)
	대	52	217	149(68.66%)	3(1.38%)
여	중	57	263	224(85.17%)	0(0.00%)
	고	58	220	158(71.82%)	1(0.45%)
	대	55	300	200(66.67%)	0(0.00%)

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중학생 79.01%, 남자 고등학생 68.20%, 남자 대학생 69.93%로서 남자 중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chi^2(2)=15.893, p<.001$), 여자 중학생들의 동성친구 비율은 74.06%, 여자 고등학생 70.35% 그리고 여자 대학생 63.61%로서 여자중학생의 동성친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chi^2(2)=8.721, p<.01$). 중간원 속의 동성친구 비율 역시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중간원 속의 이성친구의 비율은 남자 대학생 1.95% 그리고 여자 대학생 4.62%로서 1% 미만의 중고등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였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

표 5는 외곽원 속에 포함된 전체 반응수와 동성친구와 이성친구의 반응수 및 백분율을 보여준다. 외곽원에 포함된 동성친구 비율 역시 남녀 모두 중학생들이 가장 높았고(남: 79.06%, 여: 85.17%) 그 다음이 고등학생들(남: 74.52%, 여: 71.82%)이었으며 대학생들의 비율(남: 68.66%, 여: 66.67%)이 가장 낮아(남: $\chi^2(2)=7.204, p<.05$, 여: $\chi^2(2)=11.230, p<.001$), 남녀 모두 연령과 함께 감퇴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외곽원 속에 포함된 이성친구의 비율은 모든 연구대상자들에서 매우 낮았다. 전체적으로 남녀 중학생들이 남녀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보다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에 더 많은 동

표 6.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어머니, 아버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의 네 가지 애착기능 빈도(%)

애착기능	성별	연령 집단	N	어머니	아버지	동성친구	이성친구
근접추구	남	중	56	2(3.51%)	3(5.26%)	45(78.95)	1(1.79%)
		고	60	11(18.33%)	1(1.67%)	35(58.33%)	3(5.00%)
		대	52	3(5.77%)	0(0.00%)	26(50.00%)	20(38.46%)
	여	중	57	7(12.28%)	2(3.51%)	41(71.93%)	1(1.75%)
		고	58	14(24.14%)	1(1.72%)	36(62.07%)	1(1.72%)
		대	55	8(14.55%)	0(0.00%)	20(36.36%)	22(40.00%)
안전한 피난처	남	중	56	15(26.79%)	4(7.14%)	33(58.99%)	2(3.57%)
		고	60	17(28.33%)	4(6.67%)	33(55.00%)	0(0.00%)
		대	52	13(25.00%)	0(0.00%)	30(57.69%)	9(17.31%)
	여	중	57	10(17.54%)	0(0.00%)	40(70.18%)	0(0.00%)
		고	58	6(10.34%)	2(3.45%)	39(67.24%)	2(3.45%)
		대	55	6(10.91%)	2(3.64%)	32(58.18%)	12(21.82%)
분리저항	남	중	56	23(41.07%)	7(12.50%)	21(37.50%)	0(0.00%)
		고	60	27(45.00%)	8(13.33%)	13(21.67%)	4(6.67%)
		대	52	20(38.46%)	2(3.85%)	9(17.31%)	20(38.46%)
	여	중	57	29(50.88%)	1(1.75%)	18(31.58%)	2(3.51%)
		고	58	40(68.97%)	2(3.45%)	10(17.24%)	2(3.45%)
		대	55	17(30.91%)	1(1.82%)	10(18.18%)	23(41.82%)
안전기지	남	중	56	16(28.57%)	18(32.14%)	18(32.14%)	0(0.00%)
		고	60	21(35.00%)	22(36.67%)	9(15.00%)	0(0.00%)
		대	52	18(34.62%)	15(28.85%)	12(23.08%)	4(7.69%)
	여	중	57	30(52.63%)	8(14.04%)	12(21.05%)	0(0.00%)
		고	58	25(43.10%)	1(1.72%)	12(20.69%)	1(1.72%)
		대	55	28(50.91%)	3(5.45%)	12(21.82%)	5(9.09%)

성친구를 포함하여, 동성친구는 청년초기의 중학생들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이성친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서는 거의 응답되지 않는 인물이었다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성친구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남자 대학생들은 내부원에, 여학생들은 중간원에 포함된 이성친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4. 부모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의 애착기능

내부원의 구성원들인 부모와 동성친구 및 이성

친구가 네 가지 애착기능 즉 근접추구 기능, 안전한 피난처 기능, 분리저항 기능, 안전기지 기능 중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6과 같이 네 가지 애착기능에 응답한 어머니, 아버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의 반응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표 6과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접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애착인물은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과 남자 대학생에서 동성친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성친구의 비율(40%)이 동성친구의 비율(36.36%)보다 더 높아 동성친구는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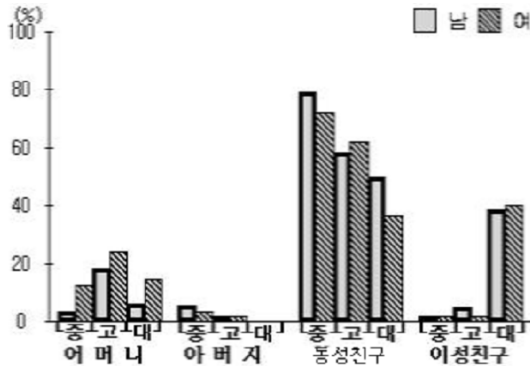


그림 4. 근접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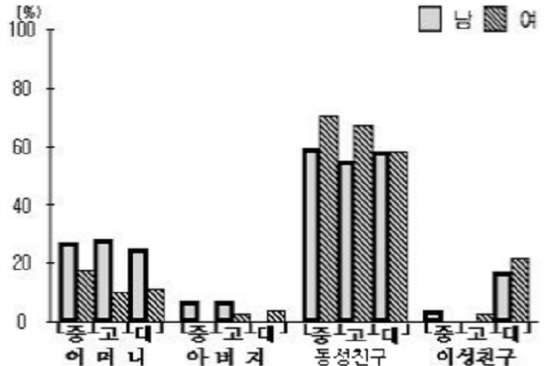


그림 5. 안전한 피난처

게 그리고 이성친구는 여자 대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근접추구 기능을 하는 인물이었다. 근접추구 기능을 하는 인물로서 어머니의 비율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동성친구의 비율보다 일관성 있게 더 낮았고, 아버지는 근접추구 인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위험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탐색행동을 멈추고 후퇴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하는 인물로서 표 6과 그림 5에 제시된 바와같이 50% 이상의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이 일관성 있게 동성친구를 응답하였고 남자 대학생의 17.31% 와 여자 대학생의 21.82%는 이성친구를 응

답하였다. 동성친구 다음으로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하는 인물은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남자 대학생들의 20% 이상과 여자 중고등학생들과 여자 대학생들의 10% 정도가 어머니를 응답하였고 아버지는 근접추구 기능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매우 낮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아버지는 여자 중학생과 남자 대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인물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는 것에 저항하도록 하는 인물로서 표 6 및 그림 6에 제시된 바와같이 어머니는 중고등학교 남녀 청소년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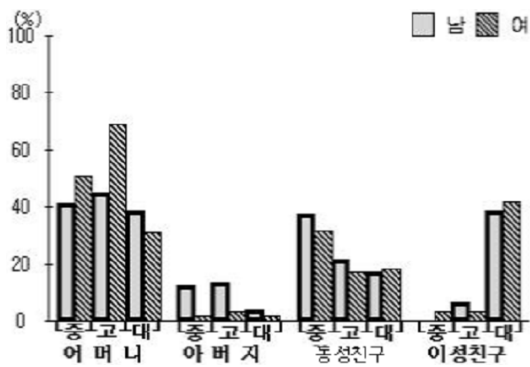


그림 6. 분리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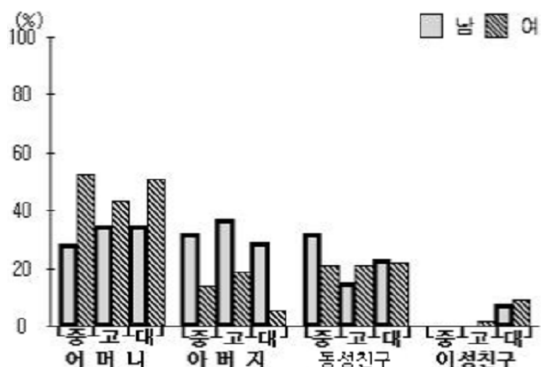


그림 7. 안전기지

분리저항을 일으키는 애착인물로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분리저항 기능을 하는 애착인물로서 어머니와 이성친구의 비율이 38.46%로 동일하였고, 여자 대학생들에서는 이성친구의 비율(41.82%)이 어머니의 비율(30.91%)보다 더 높아 대학연령에서는 이성친구가 분리저항 기능을 하는 인물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동성친구는 남녀 중학생들(남: 37.50%, 여: 31.58%)에게 분리저항 기능을 하는 인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아버지는 특히 남자 대학생(3.85%)과 여자 중고대학생들(중: 1.75%, 고: 3.45%, 대: 1.82%)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아버지는 청년기 여성 모두와 남자 대학생들에게 분리저항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인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애착인물과 함께 있을 때 마음 놓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인물은 표 6과 그림 7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자 중고등학생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인물은 어머니였다. 흥미롭게도 남자 중고등학생들은 어머니(중: 28.57%; 고: 35%)보다 아버지(중: 32.14%, 고: 36.67%)를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특히 남자 중학생들은 아버지와 동성친구를 선택한 비율이 32.14%로서 동일하였다. 그러나 여자 중고등학생들과 여자 대학생들은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인물로서 어머니(중: 52.63%, 고: 43.10%, 대: 40.91%)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동성친구(중: 21.05%, 고: 20.69%, 대: 21.82%)였으며, 여자 대학생들은 이성친구(9.09%)를 아버지(5.45%)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요약하면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에게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하는 인물은 주로 친구였고 분리저항기능과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인물은 주로 어머니였다. 아버지

는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 및 분리저항 기능에서 모든 연구대상자들에 의해 어머니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보다 더 낮은 비율로 응답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인물로서는 남자 중학생들은 동성친구와 동일한 비율로, 남자 고등학생들은 네사람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그리고 남자 대학생들은 어머니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아버지를 응답하여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남자 청소년들은 물론 남자 대학생들에게도 안전기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또한 이성친구는 남녀 대학생들에게만 근접추구 기능과 분리저항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청년기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와 애착인물로서 부모 및 친구의 애착기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남녀 중학생(남: 56명, 여: 57명)과 고등학생(남: 60명, 여: 58명) 및 대학생(남: 52명, 여: 55명)들을 대상으로 호위대 모델을 사용하여 호위대 크기와 구성원들이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호위대 속에 포함된 동성 및 이성친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부원의 구성원들인 부모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는 애착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세 개의 동심원 중 외곽원에서만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보다 더 큰 외곽원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남녀 중고등학생들은 내부원 구성원으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친구 그리고 조부모를 포함하고 동성친구는 조부모보다 더 가깝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나 남녀 대학생들은 조부모 대신 이성친구를 포함하였다.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중간원과 외곽원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인물은 동성친구였고, 중간원에는 공통적으로 사촌 형제자매와 조부모를 그리고 외곽원에는 선생님을 포함하였다. 특히 중학생들은 중간원에 고모, 이모, 삼촌과 같은 친인척을 포함한 반면, 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을 그리고 대학생들은 선후배나 이성친구를 포함하고 외곽원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친인척을 포함한 반면, 대학생들은 선후배와 이성친구를 포함하여 차이를 보였다. 호위대 속의 동성친구 비율은 중학교 연령에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으나 이성친구의 비율은 중고등학교 연령에서는 매우 낮고 대학연령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대학생들의 이성친구 비율도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부모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의 애착기능을 비교한 결과 동성친구는 주로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하는 반면, 어머니는 분리저항 기능과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성친구는 남녀 대학생들 사이에서만 근접추구 기능과 분리저항 기능을 하는 인물이었고 아버지는 4가지 애착기능 모두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만 어머니보다 더 높은 비율로 안전기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 연구에서 청년후기의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보다 더 큰 외곽원을 가지고 있고 내부원과 중간원에서는 성차가 없었지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외곽원을 가지고 있어 19-25세의 한국 남녀 대학생과 중년의 한국 성인 남녀를 연구한 장휘숙(2006, 2011)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내부원을 가지고 있고 중간원과 외곽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Antonucci 등(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아, Birditt와 Fingerman(2003)의 주장대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만, 친밀도를 지각하는 방식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문제는 7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한 Antonucci 등의 연구는 13-19세 집단과 20-39세 집단을 구분하고 20-39세 집단의 내부원 속에는 배우자도 포함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심원의 크기에서도 이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Antonucci 등의 연구에서는 내부원에 포함된 사람의 수가 가장 많고(4명) 그 다음이 중간원(3명)이며 외곽원(1-2명) 구성원의 수가 가장 적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중간원 구성원(5-6명)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내부원(4명) 그리고 외곽원(3-4명) 순으로 한국의 중년 성인들을 연구한 장휘숙(2011)의 연구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은 내부원에서는 미국인이나 일본인과 차이가 없지만 중간원에 가까운 친인척을 더 많이 포함함으로써 더 큰 호위대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친족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호위대 속에 포함된 인물로서 남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내부원 속에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미국의 13-19세 결과와 일치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친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13-19세 결과와 일치하였다(Antonucci et al., 2004).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은 중간원 속에 조부모를 포함한 일본의 결과와는 다르게 중간원보다는 내부원 속에 더 많은 조부모를 포함함으로써 조부모는 청소년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애착대상 인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자녀를 가진 한국의 어머니들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서동인, 1996), 청소년들은 조부모를 부모만큼 가까운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

어 조부모에 대한 어머니와 청소년 간의 지각차이를 보여주었다. 분명한 것은 손자녀들은 조부모로부터 부모에게서 경험하지 못하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Roberto & Stores, 1992),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기 동안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부부와 자녀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년기 진입과 함께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는 동성친구는 내부원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중간원과 외곽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는 인물이어서 청년기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임은 물론 이 시기의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안녕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Berndt (2002)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흥미롭게도 호위대 속의 동성친구 비율은 중학생들에서 가장 높고, 대학생들에서 가장 낮아 청년초기인 중학교 시기는 동년배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라는 Steinberg (1999)의 주장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특히 중간원과 외곽원에 포함된 동성친구의 비율은 대학연령에서 초차 60% 이상이어서 청소년들은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친구와 보낸다는 Larson과 Richards(1994)의 주장이나 정서적 지원 제공자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연구한 Furman과 Buhrmester (199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조부모를 포함하여 고모, 이모, 삼촌 같은 친인척을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의 일원으로 지각하지만 대학생들은 내부원의 구성원으로 조부모 대신 이성친구를 포함하고 중간원과 외곽원에 선후배나 이성친구를 포함함으로써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이 친인척에서 벗어나 의미있는 타인으로 확장되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선생님은 남자 고등학생들의 중간원에 그리고 모든 연구대상자들의 외곽원에

포함됨으로써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선생님을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의 일원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도 많아 한국 교육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호위대 속에 포함된 이성친구의 비율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매우 낮아 과거보다 더 이른 연령에서 데이트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 연구자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늦게 시작되고 대학연령까지도 성인초기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젊은이들의 성인기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장휘숙, 2008; Arnett, 1977; Seiffge-Krenke & Gelhaar, 2007)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내부원의 구성원들 중 동성친구는 네 가지 애착기능 중에서 주로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하고 어머니는 분리저항 기능과 안전기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Hazan과 Zeifman(199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근접추구 기능과 안전한 피난처 기능 및 분리저항 기능에서 4사람의 애착인물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중고등학교 남자 청소년들과 남자 대학생들에게는 어머니와 유사한 정도의 안전기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Furman과 Buhrmester (199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은 특히 아들의 안전기지로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 마음놓고 탐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자녀들은 동성의 부모에게 더 많이 의지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호위대 속에 포함된 동성친구의 비율이 중학교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언제부터 동성친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성장의 가속화 현상으로 초등학교 연령에서 이미 사춘기 변화를 겪는 아동들도 많이 있어 친구에 대한 선호와 애착은 이미 초등학교 연령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까지 포함함으로써 친구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와 양상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애착인물의 기능만을 연구함으로써 각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과 애착기능과의 관련성을 측정하지 못한 제한점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호위대 모델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도구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청년기 동안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포괄적으로 규명될 수 있었음은 물론 부모와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가 각기 상이한 애착기능을 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서동인 (1996). 10대 자녀를 둔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과 손자녀역할: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따른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357-371.
- 장휘숙 (2006). 애착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06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76-277.
- 장휘숙 (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109-126.
- 장휘숙 (2009). *청년심리학 제 4판*. 서울: 박영사.
- 장휘숙 (2011). 호위대 모델에 기초한 한국 중년 성인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1-18.
- Antonucci, T. C., Akiyama, H., & Lansford, J. E. (1998). The negative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 among older adults. *Family Relations*, 47(4), 379-384.
- Antonucci, T. C., Akiyama, H., & Takahashi, K. (2004).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353-370.
- Antonucci, T. C., Fuhrer, R., & Dartigues, J. F. (1997). Soci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in a sample of community dwelling French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1), 189-195.
- Arnett, J. J. (1997). Young people's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Youth & Society*, 29, 1-23.
- Baltes, P. B., & Mayer, K. U. (1999).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7-10.
- Birditt, K. S., & Fingerhman, K. S. (2003).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dults' descriptions of emotional reactions to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8, 237-245.
- Furman, D.,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151-177). London: Jessica

- Kingsley.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 B. Baltes, & O.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New York: Academic Press.
- Knipscheer, K., & Antrucci, T. C. (Eds.). (1990). *Social network research: Methodological questions and substantive issues*.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Larson, R. W., & Richards, M. H. (1994). *Divergent realities*. New York: Basic Books.
- Roberto, K. A., & Stores, J. (1992). Grandchildren and grandparents: Roles, influences an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 227-239.
- Seiffge-Krenke, I., & Gelhaar, T. (2007). Does successful attainment of developmental tasks lead to happiness and success in later developmental tasks? - A test of Havighurst's (1948) theses. *Journal of Adolescence*, 4, 1-20.
- Steinberg, L. (1999). *Adolescence* (5th Ed.). McGraw-Hill College.
- Steinberg, L., & Silverberg, S.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1차 원고 접수: 2011. 07. 06

수정 원고 접수: 2011. 08. 16

최종 게재 결정: 2011. 08. 17

Close Social Relationships and Attachment Functions of Parents and Friends in Adolescence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ize of convoy and convoy membership according to gender and age, how many friends in the convoy there are an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ttachment functions of parents and friends with middle/high/college students on the based of convoy model. Results revealed female had lager outer circle than male and college students than millde/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had more friends of different sex and less kinships in the convoy than middle/high school ones. The percentages of friends were highest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at of friends of different sex highest in college ones. As attachment figures, friends were target of proximity seeking and safe haven but mothers were target of separation protest and secure base. Interestingly friends of different sex were target of proximity seeking and separation protest in college students and fathers were target of secure base only in male middle/high school ones.

Keywords: convoy, adolescence, parents, friend, attachment